

The Keyword XIII.

'무명(nameless)' -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의 뿌리는 열등감입니다.

1.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고로 '쓰임'의 영역을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두 종류이다. 극단적 표현 같지만 두 영역이다. 진리는 회색지대가 없다. 천국과 지옥이다. 진리와 거짓이다. 적과 아군이다. 영과 육이다. 빛과 어둠이다. 선과 악이다. 모든 개념은 반대의 개념이 있을 때 선명해진다.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보면 '진리'가 선명해진다.

쓰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과, 사탄·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결과는 열매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그래서 진리는 명확하다. 모호하지 않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다.

2. 정체성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출애굽은 정체성의 변화를 말한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다. 종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집에 살아도 신분은 종이다. 아버지도 종이면 아들도 종이다. 신분의 대물림이다. 즉, 모든 영역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노력해도 소용없다. 올라가도 소용없다. 종의 신분안에서 올라갈 뿐이다. 결국 '종'에 갇힐 뿐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려 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각의 변화를 말한다.

그런데 그들 안에있는 애굽의 종의 사고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살 수 없는 광야를 초자연적으로 살아가게 하셔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광야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하늘의 역사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온 우주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확인해 주셔도 믿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죄성' 때문이다.

3. 열등감

사람이 지었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미혹의 덫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의심이다. 의심을 통해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죄를 통해 들어온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정죄감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열등감'이다.

왜 열등감인가? 열등감은 자신감,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열등감'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 한다. 결국 열등감의 뿌리는 '불신'이다. 자신에 대한 불신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 상태가 열등감이다.

4. 유명해지자 - 바벨

(1) 지친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죄인된 사람의 해결은 바벨탑을 지어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자)' 이다.

[창세기 11:4]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흠어지지 않게 하자

유명하다는 것은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여지는 탑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남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유명'이며, 유명해져야 이 세상이 부여하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여지는 일에 혈안이 되어있다.

보여지는 일에 신경을 써야한다. 결국 지친다. 바벨탑을 쌓아야 한다. 결국 '과함과 허영'으로 나타난다. 사치이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으로 멸망하는 바벨론의 속성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과한 현상'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왜 그런가? 세상의 모든 가치가 '비교'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교'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8:3, 7, 9]

3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7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9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2) 내면이 결국 파괴된다 - 외로움

보여지는 '유명과 주목'과 같은 걸만 신경쓰니,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내면이 무덤이 되는 것이다. 내면, 즉 속사람을 돌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겉사람은 후패한다. 인기도 없어진다. 명예와 권력도 없어진다. 영원한 권력과 명예는 없다. 그 말은 결국 '혼자' 남는다.

[고린도후서 4: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언제 사람이 철드는가? '인생은 결국 혼자 남게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될 때이다. 그 때 들어오는 허무함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마지막 때 현대인들은 '외로움'이라는 암 보다 무서운 병과 싸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병이 독처하는 외로움의 병이라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아내 하와를 주신 것이다.

5.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곳 - 무명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한 사람을 찾으셨다. 골리앗의 의미는 무엇인가? 골리앗은 사람의 한계를 말한다. 사람의 방법으로 대책이 없는 상황을 말한다. 오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즉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골리앗의 의미이다. 그 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대안이 있었다. 사무엘을 부른다. 빨리 가서 위기상황을 돌파할 한 인물을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았다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을 보내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사람이 누구인가?

(1)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무명의 다윗이었다.

[사무엘상 16:10-12]

10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11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 떼를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 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12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대안은 인간의 눈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다윗이었다. 무명의 다윗이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이 되는 장소에 있었다. 오늘 내 마음이 세상의 주목에서 떠나있어야 한다. 유명의 뿌리는 탐욕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결국 파괴되는 열등감의 정글이다.

예수님을 보라. ‘사람의 기대’와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비교’ 당하지 마라. 세상이 만든 가치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절대 세상의 기대와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 무명을 주목하라. 변방을 주목하라.

(2) 무명의 장소에서 준비된 삶

하나님의 오디션이 진행된다. 오디션은 무엇인가? 무명에서 보물을 찾는 것이다. 무명 가운데 있는가? 감사하라. 하나님의 눈은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다윗이 한 일을 보라.

[사무엘상 17:34-36]

34 그러나 다윗은 굶하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 떼를 지켜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 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35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 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36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레반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설득은 사울 왕 앞에서 진행되었다. 사울 왕의 의미는 지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의 열등감이다. 그들에게 다윗의 삶은 답이된다. 소망이 된다. 오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가치를 경작해 온 다윗의 마음이, 결국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를 가져왔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친밀함의 장소를 경작하라.

(3) 고독이 아닌 독거의 장소 - 자기부인의 장소 -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장소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고독이 아닌 독거의 장소로 가야한다. 유명의 장소가 아닌 무명의 장소가 내 안에 주목되어 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직전의 상태임을 명심하라.